

내 마음의 봄

지난 겨울이 추위와 엄동설한의 고통이 없어서일까. 고통없는 기다림은 애닦지 않아서일까. 봄 햇살은 소리 소문도 없이 내 마음의 뒷마루에 길게 드리워지고, 봄은 어김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나는 그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겨울과 작별의 인사도 하지 못했으니 봄을 맞이할 준비도 못했으리라. 그렇게 봄이 다가옴을 느낄 여유조차 없이 허둥대며 살았던 말인가. 한달여 동안 별 아픈 곳도 없는데 몸은 바쁘고 마음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한달 전만 해도 나무가지에 아직 파란 잎들이 돌아나지 않았기에 봄을 너무 멀리서 기다렸나 보다. 길가에는 어느듯 개나리가 만개하고 자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이름모를 야생화들도 피어나고 나무가지에도 잎몽우리들이 기지개를 핀다. 온통 연두색 물결이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기에 항상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사는걸까. 그러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쉬워하며 미안해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을 미리 맞이할 준비도 못한채 사랑이 떠난 후에 그리워하는 것일까. 변명은 변명처럼 똑같이 반복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잘 할께.” 그러다가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남긴 것도 없이 세월은 가고 나이만 먹었다”고...삶의 소망은 허망한 바람일뿐, 삶의 본질이 되지 못했다. 이것 저것 주위들은 잡동사니 지식들은 스스로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통절한 깨달음이 없으니 스스로의 생각은 뿌연 유리창의 먼지처럼 투명하지 못하고 소리만 번잡하다. 토막잡처럼 생각은 이어지지 않으니 망상은 커지고 삶의 변화는 없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으니 길을 걷는 것도 아니요 멈춘 것도 아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순절기간동안 <내생애 마지막 30 일>이라는 캠페인으로 책자와 DVD 를 통해 매주 토론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음이 무력하니 책의 내용들은 어딘선가 보거나 들었던 내용들로 여기며 특별히 색다르거나 참신함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내게 남은 시간이 30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이 두렵고 서글플 뿐이다. 나이를 먹으니 감각은 무디어지고 뇌세포는 극히

줄어들어 생활의 타성만 늘고 긴장감이 없어지는 것일까.. 변화를 싫어하고 안전한 길로만 갈려고 한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데 현실에 다가서지 않는다. 고도원씨는 <꿈너머 꿈>이란 책자에서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너머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꿈너머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꿈너머의 꿈은 커녕 알량한 꿈자체도 흔들거린다. 무력함의 원인은 한달여 전에 막내 아들 놈을 심하게 야단을 치고나서 부터인 것 같다. 아들놈은 크게 잘못된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시간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단초였다. 아들놈은 전액 장학금으로 갈 대학이 결정되었으니 좀 나태해지는 것도 당연지사인데 아버지는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불만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괜한 시비를 걸어 언성이 높아지고 아들놈 가슴에 상처를 남긴 꼴이 되어 미안하고 허탈해진 것이다. 물론 다음날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웃으며 여느날처럼 편안하게 지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은 섭섭함과 걱정이 앙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좀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좀 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했다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그렇게도 수없이 잔소리를 했건만,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치더니만...’ 등의 녀두리다. 이 나이에 무슨 웅졸한 것인가.

도종환씨는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에서 이렇게 말한다. “달라이 라마는 ‘내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서 괴로움이 생긴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긴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은 자아 때문이며 자아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벗는 일을 득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벗는 것, 그래서 무아가 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제법무아>라고 했습니다. 욕이 말하기를 ‘아훤께서 주셨던 것, 야훤께서 도로 가져 가시니’ 심한 병에 걸려 고통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매달리던 분, 주시는 분도 그분이라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분이므로 모든걸 맡길 때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자식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시험 문제지에 정답을 쓰라고 하면 아마도 우등생은 문제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고민을 상담해 오면 청산유수처럼 명쾌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막상 내가 문제에 부딪치면 스스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애 마지막 30 일>에 나오는 지시를 따라해 보기로 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마침 오늘은 토요일이라 아들놈과 <작은 변화>를 가져보기 위해 들어서 사무실에 나와 이런 저런이야기도하고 같이 점심 사먹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소주 한잔을 겸한 외식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했다. 내일은 아들놈과 테니스를 같이 치기로 했다. 초등학교 때 테니스를 가르쳐 준다고 코트에 데리고 나가 잔소리만 한 이후로는 오래간만에 처음 치는 것이다. 그래, 내가 문제인 것 같다. 내가 내려놓고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그러면 내 마음의 봄도 오지 않을까....